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최근 수정일 : 2026. 09. 07.(월)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① 15. ① 16. ② 17. ③ 18. ④ 19. ① 20. ②

1.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실천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이다. ①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근거로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 ③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 ④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 ⑤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2. 장기 이식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기 이식자 대상자 선정 시 의료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의료적 요인은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③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시 환자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가?’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갑과 을이 모두 긍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3. 프롬의 사랑의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프롬의 주장이다. ④ 프롬은 능동적 활동으로서의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라고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프롬은 능동적 사랑으로서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 ② 프롬은 이기적인 사람은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끼고 주는 것에서 성장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프롬은 능동적 활동으로서의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라고 보고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은 사랑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⑤ 프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공자와 노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유교 사상가 공자, 을은 도가 사상가 노자이다. ⑤ 공자와 노자는 모두 큰 도[大道]가 행해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큰 도가 행해지는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고, 노자는 큰 도가 행해지는 소국 과민을 지향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공자는 효제를 시작으로 사랑[仁]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차별 없는 사랑, 즉 겸애(兼愛)가 아니라 존비친소에 따른 차별적 사랑, 즉 별애(別愛)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공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분별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분별적 지혜를 중시하였다.
- ③ 노자는 예(禮)를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위에서 벗어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였다.
- ④ 노자는 백성이 타고난 덕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도록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5.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④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화 정제에서의 전쟁 선포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주권 국가 간 평화 조약과 같은 계약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평화 연맹 안에서 주권 국가 간 계약을 통해 국제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평화 연맹은 주권을 지닌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이며 주권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국가 간 전쟁은 주권 국가 간 평화 조약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칸트는 국제 사회의 모든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로 구성된 평화 연맹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칸트는 어떤 이방인이 다른 영토에 도착했을 때 영속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6.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⑤ 니부어는 도덕적 훈련을 통해

상호 이해의 태도와 선의지의 감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즉 개인의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인 이타심은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적 충동은 집단 간 관계에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니부어는 정의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니부어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개인은 선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7. 교정적 정의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⑤ 칸트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범죄자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을 때리면, 그 사람은 그로써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둘 이상의 인격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베카리아는 어떤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고 범죄에 상응한다고 해도 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큰 다른 형벌이 있다면 그 형벌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사형에 비해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공리 증진에 부합한다고 보고 사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칸트는 어떤 형벌의 정당성은 그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된다고 보았다.
- ② 베카리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형벌은 정당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 ③ 베카리아는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도, 형벌이 가혹해도 그에 따른 사회 이익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④ 칸트는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보지 않았다. 형벌은 고통이므로 그 자체로 악이라고 본 것은 베카리아,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다.

8. 죽음에 대한 유교와 도가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이다. ③ 도가에서는 도의 관점을 따르면 삶은 기(氣)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삶과 죽음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긴다.
- ② 유교 사상은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관심을 갖고 인(仁)의 완성을 위한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본다.

④ 도가에서는 죽음이란 운명이며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⑤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이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일 뿐임을 통찰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9.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 부정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실행함에 있어 개인은 양심에 근거할 수는 있지만, 양심에 근거한 행위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인 시민 불복종과 구분하였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④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10. 플라톤의 도덕주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④ 플라톤은 예술이 인간의 올바른 성향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고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플라톤은 예술 작품은 장인이 실재를 모방하여 만든 산물을 모방한 것이므로 장인이 만든 산물보다 본질에서 더 멀다고 보았다.

② 플라톤은 현실에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함으로써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장인이 만든 산물을 모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플라톤은 예술은 실재를 인식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재를 모방하여 만든 산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11. 자연관에 대한 테일러, 칸트,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 병은 싱어이다. ⑤ 테일러, 칸트, 싱어는 모두 모든 존재를 도덕적 행위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도덕 원리는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테일러, 칸트, 싱어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 칸트, 싱어는 모두 생명이 없는 존재, 즉 무생물이 수단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수단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하는 가치에 해당한다.
- ② 테일러, 칸트, 싱어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 칸트, 싱어는 모두 어떤 존재가 의무의 주체라면, 즉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면 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 ③ 테일러, 칸트, 싱어 모두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 칸트, 싱어는 모두 자연을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생명체를 위해, 칸트는 인간을 위해,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위해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싱어와 테일러가 아니라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싱어와 테일러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칸트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 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12. 불교 사상의 음식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불교 사상이다. ㄴ. 불교에서는 만물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보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ㄷ. 불교에서는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불살생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불교에서는 바른 음식의 섭취는 탐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 ㄷ.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삼학(三學)을 닦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13.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③ 싱어는 원조의 보편적 의무는 이성적 숙고를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 의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원조 대상국, 즉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됨으로써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롤스는 인권 구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④ 싱어는 절대 빈곤국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지 않을 경우 유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원조 주체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고, 원조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라고 보았다. 롤스의 입장에서 한 국가가 동시에 원조 주체이면서 원조 대상일 수는 없다.

14.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ㄱ.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고, 국가가 수립된 이후 개인의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홉스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은 절대 권력을 지닌 리바이어던, 즉 주권자에 의해서만 확정된다고 보았다. ㄴ. 홉스는 신민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주권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신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부정의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라고 보고, 자연 상태에는 좋음과 나쁨을 구분할 공통의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정의와 부정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ㄹ. 홉스는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 계약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권리의 양도는 주권자와 신민 간 계약이 아니라 만인이 만인과 맺는 상호 신의(信義)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15. 칸트의 의무론 적용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① 칸트는 거짓말은 그 목적이 선해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언 명령의 형식을 띤 도덕 법칙이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칸트는 거짓말은 이성적 존재, 즉 인간의 준칙에 따른 행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말하는 준칙이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이고, 준칙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 원리일 수도 있다.

③ 칸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으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거짓말은 선의지에서 비롯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다.

⑤ 칸트는 도덕적 가치는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 근거한 행위만이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16. 정보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신문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에 대한 내용이다. ② 신문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은 물리적 강제력 없이도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하여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게 만들고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력 구조로 작동한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은 감시 구조에 내재된 시선의 비대칭성을 지닌다고 본다.
- ③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은 물리적 강제력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은 개인의 모든 정보 혹은 흔적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칼럼은 전자 판옵티콘은 개인을 언제 들여다보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감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17. 과학 기술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③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 즉 책임 윤리의 대상은 공포를 일으키는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나스는 책임 윤리의 대상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인간이 고안한 현대 과학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나 새롭고 이로 인해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나스는 인간이 고안한 기술의 영향력은 인간이 예상한 결과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④ 요나스는 현세대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當爲)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보호할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⑤ 요나스는 의도적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았다.

18. 순자의 직업관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④ 순자는 예(禮)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고, 예에 정통한 군주가 직분을 다하면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순자는 분업을 통해 백성 각자가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았다.
- ② 순자는 각자의 능력과 덕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순자는 예에 따라 직업을 분담하고 신분의 귀천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순자는 군주가 백성의 악한 본성을 예로써 교화시켜야 하며, 사회적 역할도 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① 롤스는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 증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롤스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노직은 개인은 최소 국가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최소 국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④ 노직은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하는 분배는 언제나 정의롭다고 보았다. 노직은 교정의 원칙은 어떤 소유물을 취득하고 이전되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 요구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노직은 분배 과정이나 절차가 정당했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분배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계급 간의 보다 큰 격차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적 평등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의 원칙마저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0. 종교와 윤리에 대한 쿡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 쿡의 주장이다. ② 쿡은 자기 종교에도 진리가 아닌 것, 즉 참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쿡은 참된 평화를 위해 자기 종교만 참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참되지 않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③ 쿡은 각각의 종교 안에 종교적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쿡은 종교적 가르침을 비판적 자세로 수용할 때 참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쿡은 모든 종교가 진리의 일부만을 지니므로 서로 다른 종교들을 하나의 종교로 합쳐야 한다는 입장은 참된 평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